

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

- 인접 시군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, 검사 등 방역 조치 강화

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이하 중수본)는 4월 14일(금)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(6,000여 마리 사육)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4월 14일(금),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·행정안전부·환경부·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.

발생상황

경기도 포천시 발생농장(3.19. 발생)의 방역대 내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인되었고, 올해 8건* 발생 중 포천시에서는 5번째 발생으로 중수본은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.

* 경기 포천(1.5, 3.19, 3.29, 3.31, 4.13), 강원 철원(1.11.), 경기 김포(1.22.), 강원 양양(2.11.)

방역 조치사항

첫째,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·가축·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, 살처분,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.

둘째,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(연천, 가평, 동두천, 양주, 철원, 화천)에 대해서는 4월 14일(금) 02시부터 4월 16일(일) 02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·도축장·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(Standstill)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,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.

셋째, 방역대(발생농장 반경 10km) 내 돼지농장 81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3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163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
넷째,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,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(53대)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(연천, 가평, 동두천, 양주, 철원, 화천)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.

방역 강화조치 및 당부사항

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“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 중에서 5건이 포천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경기도와 포천시는 관내 돼지농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하여 줄 것과 연천·철원·화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, 소독,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“경기·강원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수색·제거 등을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, 야생멧돼지가 충북 충주·경북 영덕에서도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해당 지역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·포획 및 농장 내·외부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01-2531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호 (044-201-2537)